

라 투르 부인이 해산한 몸을 털고 일어났을 때쯤 해서  
 웅색하던 두 집안에도 얼마간의 소출이 생기기 시작했는데,  
 내가 가끔가다가 일을 봐준 덕분이기도 했지만, 무엇보다도  
 두 집안 노예들이 바지런히 일한 덕분이었네. 도맹그라는  
 이름의 마르그리트네 노예는 월로프족● 흑인으로, 나이는  
 이미 지긋했지만 여전히 건장했어. 그는 경험이 많았고 타  
 고나길 사리 분별에 뛰어났지. 그는 딱히 구별 없이 두 집  
 안의 농지를 오가며 가장 비옥해 보이는 땅을 골라 경작했  
 고, 그 땅에 가장 적합한 씨앗을 심었지. 척박한 곳에는 썬  
 기장과 옥수수를, 기름진 좋은 땅에는 약간의 밀을, 늪지  
 대에는 쌀을, 바위 밑에는 지로몽호박, 쿠르주호박, 오이  
 등을 심었는데, 이런 작물들은 잘 자라서 바위를 타고 오  
 르곤 했어. 마른 땅에 심은 고구마는 단맛이 아주 잘 들었  
 고, 고지대에는 목화나무를, 점토질 땅에는 사탕수수를, 동  
 산에는 몇 그루의 커피나무를 심었다네. 커피콩이 낱알은  
 작았지만 품질은 훌륭했어. 강가와 오두막 주변에는 바나  
 나나무를 심어서 일 년 내내 길쭉한 과일 다발도 얻고, 아  
 름다운 나무그늘도 생겼지. 마지막으로 자기 근심이든 점  
 째은 주인댁들의 근심이든 누그러뜨리기 위해 담배잎도  
 재배했네. 산에 올라 땀감으로 쓸 나무를 해오는가 하면,  
 농지 여기저기 드러난 바위를 깨부숴 길을 평평하게 만들  
 기도 했어.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명민하고 활기차게 해냈

---

●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을 일컫는 말.